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어릴 적 고향 옆집에는 더부살이하는 아저씨가 있었지요. 자라목을 하고 눈은 약간 사시(사팔눈)였어요. 일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 소나기밥을 먹곤 했지요. 얼뜨다고 동네사람들이 뒷말을 해도 늘 웃었지요. 품앗이 외에도 부지런해 이웃집 일을 많이 도와주고 막걸리를 얻어 마시곤 했어요. 그 아저씨는 욕심이 없어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마을 구멍가게에서 마을 꼬마들에게 과자도 사주곤 했지요.

더부살이 :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해 주고 삯을 받는 일. 또는 그런 사람.(그녀는 부잣집에 더부살이로 허드렛일을 하면서 지냈다.)

얼뜨다 : 다부지지 못하여 어수룩하고 얼빠진 데가 있다.(두 눈 사이가 너무 넓어서 외모는 어딘가 바보스럽고 얼떠 보였다.)(홍성원<육이오>)

소나기밥 : 보통 때에는 얼마 먹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밥.(그렇게 소나기밥을 먹고 하는 동안에 그녀의 위장은 엉망이 되었다.)(한무숙<생인손>)

자라목 : 보통 사람보다 짧고 밭은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그는 자라목이라서 키가 더 작아 보인다.)

품앗이 :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품'은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노력이나 수고를 뜻합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시대의 아픔 딛고 일어서는 예술가의 삶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김동인 作 '광염소나타'

1930년 <중앙일보>에 발표한 단편 소설로, 김동인의 유미주의 세계관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죠. 김동인은 미(美)에 대한 관심이 많아 "미도 미고, 미의 반대 것도 미며, 사랑도 미, 미움도 미, 선도 미, 악도 미"라고 했어요. 그는 삶의 현실과 윤리적 관점에 위배됨에 좌우되지 않고 미를 예술적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지요.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주인공인 '백성수'가 서술하는 경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 단편 소설, 예술가 소설, 변형된 액자 소설로 몇 십 년 후 지구상의 어느 곳이 배경이지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어떤 여름 날 저녁, 도회를 떠난 교외 어떤 강변에 두 노인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을 하는 이는 유명한 음악비평가 K씨이며, 듣고 있는 이는 사회 교화자인 모씨다. 이들은 작곡가 백성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음악비평가 K씨는 습관처럼 이른 봄 어느 날 예배당에서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얼마쯤 명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안으로 한 청년이 뛰어 들어 오자마자 오르간 앞에 앉아서는 무슨 곡인가를 미친 듯이 연주하고, 연주를 듣고 있던 K씨는 그 곡에 넋을 잃고 만다. 그 청년이 바로 백성수이다. 그 후 백성수의 천재성을 인정한 K씨는 그에게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백성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이한 천재성 때문에 그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K의 수업에도 따르지 않는다. 어느 날 백성수는 홀연히 사라져 버리고, 얼마쯤 지나 K씨는 백성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백성수는 어린 시절, 자신의 심성에 영향을 끼친 이가 어머니라고 시인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기울어 가는 가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 들어가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었노라 말한다. 공장에 들어온 어느 날,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여 의사를 부르기 위해 거리를 지날 때, 비어 있는 담배 가게로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나다 주인에게 붙잡혀 6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다. 그 사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공동묘지에서 분묘조차 발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리하여 갈 곳 없이 헤매던 그가 그날 밤 찾아온 곳이 K씨가 있던 예배당인 것이다.

작가의 유미주의 세계관 형상화
시 · 공간적 배경 드러나지 않아

백성수씨는 그 날 밤, 예전에 돈을 훔친 담배 가게 앞을 지나다 과거의 무서운 복수심이 일어 그 가게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런 심적 상태로 교회 오르간에서 연주한 것이 바로 '광염 소나타'이다. 이는 백성수의 광포하면서도 야성적인 천재성이 어머니의 어진 교육 탓에 내재되어 있다가 드디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로도 백성수는 몇 차례의 방화를 저지르고 '성난 파도'라는 곡을 탄생시키고 그 뒤로도 도처에서 일어난 방화와 사체 모욕, 살인 등의 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히게 된다. 그의 천재성을 아깝게 생각한 예술협회의 탄원 덕에 사형은 면하나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K는 힘 있고 야성으로 충일된 예술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변변치 않은 살인, 방화나 집개, 사람개는 아깝지 않으며, 오히려 변변치 않은 범죄를 구실로 예술을 없이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 여긴다.

천재성을 가진 백성수는 기존 양식의 틀을 거부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예술을 지향. 그의 시체 강간, 살인 등의 광기 어린 일탈은 예술혼의 구현을 위한 과정이죠. 광기를 통해 진정한 음악을 성취하고 있죠. 이런 백성수의 예술 행위를 통해 K는 백성수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음악 평론가로서 진정한 예술을 위해서 여타의 희생(범죄)을 감수해야 한다는, 예술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고 있지요. 대담상대자인 사회 교화자는 예술을 위한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죠. K의 예술관은 작가의 예술관과 일맥상통하지요. 그의 유미주의에 대한 집착과 자부심은 서술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예술 창조의 욕구와 미에 대한 광기 어린 동경을 나타내는 이 작품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시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O형이 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을 보면 혈액형 O형이 대부분 성격이 좋더라고요. 공부도 잘 하고요. 전 소심하고 사교성도 별로 없고…. 아무튼 O형으로 다시 태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성격도 바뀔 수 있어요

요즘에도 혈액형별 유형 따지기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저런 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A형은 내성적이고, B형은 한눈을 많이 팔며, O형은 사교성이 좋고, AB형은 극단을 오간다. 어느 형 남자와 어느 형 여자가 만나면 좋고, 반대로 어느 형과 어느 형은 오래 가기 힘들다…. 대개 언론사에서는 이런 이야기 마지막에는 "어느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혈액형 성격은 별 근거가 없으니 믿지 마라"고 끝내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파악하는 혈액형별 이야기는 나름대로 좋은 지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무엇이든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혈액형 성격이나 별점이나 사주 등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갇히게 되지요. 여러 가지 성격 검사나 지표 검사 그 자체보다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이 구분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힘겹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 그런 판단과 결정을 자주 하다 보니 사람들과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 옥천암 청소년법회 지도법사 운산 스님)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스님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 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문의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결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氣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